



[새해 새 전략... 쏘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시대 흐름 맞춰 신한 모든 것 바꿔야" 06



Economy

Table showing market indicators: 코스피 (2019.01.07) at 664.49 (0.00), 코스닥 at 664.49 (0.00), 금리 (미국 3년) at 1.80 (0.00), and 환율 (USD-KRW) at 1124.50 (-3.20) (4일).

카드보다 무서운 배달앱 수수료 자영업 "17% 떼면 남는게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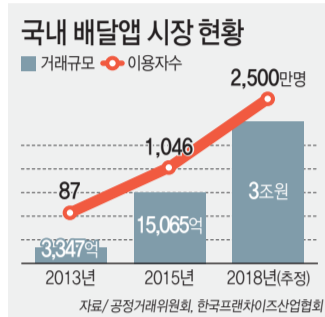
배달에 올고오는 자영업 <上>전성시대의 그늘

'배달이요', '배달왔송' 아파트 앞 준비하게 서있는 상가 사이, 5평 남짓 민모씨(40)의 카페가 있다. 민모씨의 하루는 휴대폰으로 올리는 배달앱 알림으로 시작한다. 직접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가는 고객은 하루 15명 내외. 카페의 매출은 주로 배달앱에서 나온다. 그러나 며칠째 민모씨는 시무룩하다.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이다. 민모씨는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해준다 하더라도 배달앱 수수료는 그대로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지원대책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수수료 인하 무풍지대 배달앱 이용자 2773% ↑

자영업자 매출 늘었지만 광고·수수료 비싸 올상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바야흐로 배달앱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식탁 풍경이 바뀐데다, 스마트폰을 통한 음식주문도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영업



자는 늘어난 배달앱 이용자와 매출액이 마냥 같지 않다. 매출상승이 곧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따르면 따르면 국내 배달앱 이용자는 지난 2013년 87만명에서 올해 2500만명으로 5년만에 2773% 급증했다. 거래 규모는 2013년 3347억원에서 현재 3조원으로 796% 커져 5년새 10배가량 성장했다. 15조원 규모의 전체 음식배달시장의 20~30%를 차지하는 셈이다.

배달앱 시장의 성장은 곧 자영업자의 매출로도 이어졌다. 지난 3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 음식점 업주 1000명 가운데 46.2%가 배달앱 이용 후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1.7%는 배달앱을 이용하면서 주문량이 늘었고,

<온라인 배달업체 특징 비교>

Table comparing features and fees of three delivery services: 배달의민족 (3.3% fee), 요기요 (15.5% fee), and 배달동 (5.5% fee).

/리서치랩·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57.6%는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늘어나는 매출에도 자영업자의 시름은 더하고 있는 상태다. 배달앱에 의존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주문수만큼 수수료 부담이 커져서다.

◆배달앱 이용 수수료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은 외부결제 수수료와 광고비다. 매출의 최고 15.5%를 음식점과 소비자간 배달은 중개한 배달앱이 통행세 개념으로 가져가고 있어 서다.

중개수수료는 배달앱마다 다르다. 시장점유율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은 가맹점주로부터 건당 외부결제 수수료 3.3%를 책정하고 기본광고비로 월 8

만원을 받고 있다. 별도의 중개 수수료는 없다. 반면 요기요는 주문한 건당 중개수수료 12.5%에 외부결제수수료 3%를 더해 총 수수료는 15.5%를 받는다. 부가세까지 더하면 17.05%다. 배달동은 건당 중개수수료 2.5%와 외부결제수수료 3%를 책정하고 기본광고비로 3~7만원을 받고 있다. 3대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1만원 매출에 최대 17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자영업자는 배달앱에서 소비자 편의와 수익구조 확보를 위해 마련한 '즉시결제(바로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새해 첫 부분일식 새해 첫 일요일인 6일 오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달이 해를 가리는 부분 일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5G·AI 등 융복합 시대' 글로벌 혁신기술 뿔낸다

CES 2019 개막 D-2

155개국 4500개 업체 참여 삼성, 최대부스서 신제품 전시 LG, 88인치 TV·로봇 등 공개

매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소비자가전쇼) 2019'가 하루(현지시간 기준)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8일(현지시간)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는 글로벌 ICT 기업들이 총출동하는 지상 최대의 가전·IT 전시회다.

글로벌 전자·IT·자동차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한편, 다른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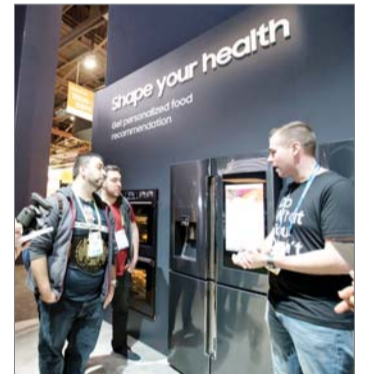
CES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메카'로 등극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 SK텔레콤, 네이버, 현대·기아차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기업들도 대거 참여해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한 단계 더 진화된 기술력을 앞세워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다. 이번 CES에는 155개국, 45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관련기사 3·4면>

◆삼성·LG전자, TV·로봇 기술력 경쟁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기술력 경쟁은 글로벌 가전업계의 뜨거운 관심사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참가업체 중 가장 큰 부스를 꾸려 신제품과 신기술을 대거 선보인다. 'QLED 8K'와 '마이크로LED' TV 신제품 중심으로 부스를 꾸릴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CES 2019에서 90인치대 초대형 8K QLED TV를 선보일 것으로 전해진다.

마이크로LED TV의 경우 기존 B2B(기업 간 거래) 중심이었던 '더월'에서 가정용에 적합한 규격



지난해 열린 CES 2018 삼성전자 부스 체험모습과 산업현장이나 상업, 물류공간에서 사용자의 허리근력을 보조하는 'LG 클로이 슈트봇'. /각사

으로 조정된 신제품들을 소개해,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로 시장을 본격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88인치 OLED TV의 공개를 예고하고 있다. 화면이 돌돌 말리는 '롤러블' OLED TV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지난 'CES 2018'에서 LG디스플레이가 65인치 롤러블 OLED 패널을 선보였기 때문에 이번 CES에 LG전자가 이를 활용한 TV 완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 분야의 경우 LG전자는 IFA에서 개념인 하체 근력 지원용 로봇인 'LG 클로이 슈트봇'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 CES에서는 허리 근력을 보조하는 슈트봇을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도 신경 근육질환에 사용하는 발목 보조로봇 등 수년간 개발해 온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을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린다.

<3면에 계속> /양성운·구서운 기자 ysw@

'격식·독식 NO'... 벽 허무는 신세대 총수

이재용, 기흥 사업장 방문 수행원 없이 구내식당 식사 최태원, 시무식 대신 토크쇼 구광모, 노타이로 연단 올라

신세대 총수들이 격식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계열사 독립 경영도 중시하는 모습이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3일 기흥사업장을 전격 방문했다. 5G 통신 장비 생산라인 가동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날 점심에는 이 부회장이 고동진 사장과 전경훈 부사장 등 경영진들과 함께 구내 식당을 찾아 과거 행보를 보였다. 수행인력도 배치하지 않고 구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눴으며, 짬뽕을 한그릇 먹은 후 자리를 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해 8월 경기 평택캠퍼스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함께 구내식당을 찾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일 기흥사업장 구내 식당을 찾아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성전자

은 바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올해 신년사도 정이선 총괄 부회장이 주재하면서 분위기를 다소 바꿨다. 엄숙한 진행 방식은 비슷했지만, 신년사에는 유연한 기업문화, 이사회 독립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아예 시무식 자체를 없앴다. 최 회장은 시무식행사 대신 토크쇼 같은 대담

형식으로 열고 직원들과 함께 공유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 SK케미칼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가 신년 목표를 논의하고, 최 회장이 마무리를 하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경영 실적 등 구체적 목표보다 '행복'을 추구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역시 신년사에서 넥타이를 매지 않은 캐주얼 복장으로 연단에 올라서 주목을 받았다. 행사 참가자들도 편안한 차림으로 행사장에 나왔다.

30년간 시무식을 열었던 LG트윈타워 대신, 마곡 사이언스파크에서 행사를 열고 미래 지향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전년보다 2배 많은 800여명을 초대하기도 했다. 호칭도 회장 대신 대표로 불러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총수들이 격식을 거부하고 경영권을 분배하는 이유는, 미래 산업에서 창의성이 중요해졌

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직 자율성을 장려한다는 주장이다.

재계에서는 이미 계열사 자율경영 체제가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다. 삼성전자는 그룹 경영이 아닌 계열사가 따로 사업을 꾸려온지 오래이며, 현대차그룹도 해외영업본부를 권역별로 분리하는 등 경영권을 적극적으로 분리하고 있다. SK그룹도 SK네트웍스와 SK디스커버리 등 주요 계열사에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는 후문이다.

순환출자·일감몰아주기도 거의 해결된 상태다. 삼성그룹은 이미 규제에서 자유롭고, 현대차그룹도 올해 배구조개편안을 통해 문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LG그룹과 SK그룹도 관련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등 방법으로 정부 요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juk@